

중소기업에서 요구되는 직업역량과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Work-Competencies and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오은주
경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Eunjoo Oh(eoh1@ki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산업체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에게 요구되는 직업핵심역량을 조사하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대학 교육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켜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체에서 대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제안하고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업핵심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부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4개의 지역 대학을 선별하여 교양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대인관계역량과 자기관리역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대학의 교육과정 분석결과 대학은 의사소통 교과목을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었고 대인관계 및 자기관리역량과 관련된 강좌는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언 되었다.

■ 중심어 : | 직업핵심역량 | 역량기반 교육과정 | 대인관계역량 | 자기관리역량 | 의사소통 |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propose a framework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r achieving the purpos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300 companies at the southern regional area to find out core work-competencies that are needed in the work places. In addition,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from 4 universities from the same area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survey results to examine if the university curriculum satisfy the need of work places by providing courses that nurturing work competencies. The study found that abilities to work as a team and self-regulation are the core competencies. However, the participating universities did not provide enough courses for students to achieve the core work competencies that are mostly needed in the work plac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competency based-curriculum were suggested, and the process for implementing the curriculum was discussed.

■ keyword : | Work-competencies | Competency-based Curriculum | Teamwork | Self-regulation | Communication |

* 본 논문은 2010년 경일대학교 교내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 받았음.

접수번호 : #111110-004

접수일자 : 2011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2월 06일

교신저자 : 오은주, e-mail : eoh1@kiu.ac.kr

1. 서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기존의 직종이 소멸하고 새로운 직종이 생성되는 등 직업세계의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만을 가지고 평생 직업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16][30]. 이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대학은 경쟁력을 높이고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많은 대학이 각 학교의 특성화 분야를 강조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첨단 학문 분야 및 융합교육과정 트랙을 개발하거나 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교육과정 트랙을 제공하여 대학에서 산업체로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시도하는 등 학문적 지식보다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시행하여 사회경제의 변화 및 산업계의 수요에 더욱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5].

그러나 직업세계에 대한 연구[5][8][10-13][32]에서는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봉환, 이성욱[2]은 직무 영역이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되고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학의 교육과정이 사회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기업체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여 활용도가 낮은 실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태[5]와 주인중 외[33], 그리고 오만덕과 이승희[20]는 대학의 교육과정은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 내용을 반영해야 함에도 학교 교육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과 괴리가 있어 직업 세계에 입문한 신입사원의 실무역량이 매우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기업들은 서울 및 수도권 기업과 비교하여 우수 인재 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학에서 배출된 졸업생의 수준의 격차가 수도권과 비교하여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9][19].

2011년 현재 청년 실업률이 7.6%로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

족을 호소하고 있다[7][26][37]. 교육과정과 직업역량과 관한 연구들[19][39]은 교양교육과정에 직업소양능력 공통능력을 교육내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과정은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19].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중소기업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재 학생들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직업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업 핵심역량 진단 평가(K-CESA) 역시 대기업의 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33].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기업 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핵심역량을 분석하여 실제로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였다. 아울러 대학 교육에서 이러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 지역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시되었다.

1. 연구문제

1.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2.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1. 직업핵심역량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를 효과적이고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내적인 특성인 지식, 기술, 태도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동적인 정신적 활동 및 수행능력을 의미한다[6][36][44][45].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환경적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역량과 일반적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역량의 개념은 전통적인 평가도구가 직무수행이나 삶에서 성공 여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23]. 기업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조직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였다[7][12]. 지금까지 역량의 개념은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으나,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공통으로 의미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체계라는 것이다[24]. 역량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능력이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학습 성향을 포함한다[23][32][34].

핵심역량이란 생애 전 과정에서 개인 혹은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직업적 맥락 속에서 성공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공통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14][22][44]. 핵심역량은 개인이나 조직이 집단이 공동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며 동시에 총체적인 사회의 모습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핵심역량은 학교 혹은 직업 생활에서 특정한 역할과 연계되어 학습되고 활용된다[24][25]. 그러나 생애 전 과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들은 다양한 사회적, 직업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은 이러한 다양한 맥락에 즉각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핵심역량은 다양한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5]이며, 다른 능력에 기초가 되고, 현재 직업세계에서 학습하고 생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능력들의 총체를 직업핵심역량이라고

한다[17][23][28].

직업핵심역량은 대부분의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단순히 직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이나 기능의 개념을 넘어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공통적이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18][20][30]. 직업핵심역량은 직업세계에서 개인의 성공과 기업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다[3][7].

2011년 현재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구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직업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취업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2][33][34]. 특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계(K-CESA)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여 직업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K-CESA는 대학에서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어느 정도 길러 내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학생과, 대학, 그리고 기업에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34].

직업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널리 진행됐고 핵심역량은 시대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도태 외[3]는 대구·경북 200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핵심역량 요소 간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문서작성능력, 외국어 활용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을 제시하였다. 강경중, 이건남[1]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정보기술 및 자원 활용, 자기관리 능력을 직업기초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미석 외[34]는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계(K-CESA)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초 역량을 인지적 요소와 비인지적 요소로 구분하여서 하였다. 인지적 요소로는 의사소통, 자원, 정보, 기술의 처리 및 활용,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을 비인지적 요소로는 대인관계 및 협력, 자기관리 역량을 제시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의사소통, 문제 해결, 대인관계,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자기관리,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등 6개 영역에 24개의 하위 영역을 포함한 직업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기업에서는 직무기초능력 및 직무적성 검사 도구를 자체로 개발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에서는 삼성직무검사(SSAT)를 실시하여 인재를 선발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삼성직무검사는 기초능력검사와 직무능력검사로 나뉘어 평가가 진행된다. 기초지적능력검사는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 및 지각 속도력 등의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무능력검사는 업무능력,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상식 등 실제로 기업 조직 내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업무와 관련된 시나리오와 각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 대안들이 제시되어, 응답자는 제시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각 대안에 대처할 수 있는 형식의 문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상식과 개념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24]. 아울러 면접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태도와 가치관, 성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회성, 협동성, 성실성, 열의, 의사소통능력 등을 측정한다[1].

2. 역량기반 인적자원 개발

직업핵심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혹은 비교과과정을 통해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다. 직업핵심 역량에 관한 연구는 대학 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변화 즉, 교육과정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5][11][14]. 현대 사회는 직종 간, 직무 간의 이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사회에서는 이러한 급속한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노동인력이 필요하고 있으나 기존의 교육과정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 정보사회인 현대의 사회는 다양화된 맥락에서 지식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여 가고 있어 지식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교육과정으로는 현실의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1][14][26]. 대학의 사명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점에서 대학의 교육은 전문적 지식이 아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34][37]. 과학입국, 기술입국, 인적자본 등의 개념은 사회적 관점에서 학교를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며[37], 사회에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대학에서는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34]. 학생들은 아무리 복잡한 환경일지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해야 한다[12].

대학 교육과정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기존의 것과 연합한 지식을 재창출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보다는 지식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14][22]. 많은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 교육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이 고정적이고 일차원적이며 학생들에게 수동적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여전히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과 실제 현장과의 분절, 정제된 지식의 전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세계와 대학 교육과의 괴리를 해소하는 연구들[31][35][37]은 대학의 교육도 전통적인 교과중심 혹은 지식중심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맥락중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1][33][37].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매일 창출되고 맥락에 따라 지식의 의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14]. 역량기반 교육이란 (competency-based education)이란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무엇인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다[44].

좋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역량과 기술

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것은 생산성과 수행능력을 향상해 미래의 성공으로 이끌어진다[20].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재화를 획득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산능력과 수행능력은 이러한 재화를 획득하는 미래를 의미한다.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43]. 생산성과 수행능력을 향상하지 못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과감하게 이를 개혁해야 한다.

최근 기업에서는 역량기반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실제로 기업의 운영과 인력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만 해도 현재 100대 기업의 82%가 역량모형을 구축하고 있고 77%가 역량평가를 하고 있으며, 역량모형의 활용영역도 다양해서 개인 역량개발(28%), 승진(22%), 급여 및 인센티브(39%), 직무이동(11%)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2]. 대학에서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담론을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박성종[12]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말하기, 생각하기,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자기 주도적 수행역량 등 어떤 환경에서나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역량은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특정한 기술능력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어 전체적인 인간의 활동을 보완해 주는 역량이다. 손민호[15]와 소경희[14]는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효율적인 노동활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수행성이 높은 지식을 가르쳐야 하고 전통적인 지식의 구조를 탈피하여 생산성이 높은 교육의 내용, 조직체계, 운영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직업핵심역량의 대학 교육과정에 통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 제시됐다. 현재 대학에서는 독립된 교과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거나 비교과교육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제공하는 대학의 경우 핵심 혹은 필수 교과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거나 몇 개의 영역을 선택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의 교과는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5]. 최근 대학에는 진로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고 직업진로취업교육, 진로체험, 진로캠프 등 대다수의 취업관련 프로그램들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통상적인 취업·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필요한 핵심역량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34].

2011년 현재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3%의 두 배가 넘는 7.6%이다[42]. 곧 노동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쳐 학생들은 교과목 공부 이외에도 취업을 위한 준비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과정이 취업과 연계되기를 원하고 있다[38]. 그러므로 대학의 진로개발지원이 일상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넘어서 생애진로개발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핵심역량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향후 수행하게 될 직무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학과의 특성에 맞추어 직업능력 요소를 차별적으로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대학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다[22].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산업체는 총 300개 중소기업이었고 이 중 제조업은 153개, 서비스업은 147개 업체였다. 업종 특성상 제조업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비스업은 종사자 수에 관계없이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각 기업체의 인력개발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신입사원 업무 효율성은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사원에 대한 효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분석은 2010년과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된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교육중심

대학의 4개교를 선정하여 각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표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 산업체 및 대학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 대학

학교유형	학생 수	학교명	소재	분석대상 교육과정 개정년도
국립대학	10,000명 이상	A 대학교	대구	2010년
	5,000명 이하	B 대학교	경북	2009년
사립대학	10,000명 이상	C 대학교	대구	2010년
	5,000명 이하	D 대학교	경북	2011년

표 2. 연구 참여 기업의 업종, 종사자 수와 매출액

구 분		기업 수	비율
전 체		300	100.0%
지역	대구	155	51.7%
	경북	145	48.3%
업종	제조업	153	51.0%
	서비스업	147	49.0%
종사자 수	10인 미만	29	9.7%
	10-30인 미만	105	35.0%
	30-100인 미만	104	34.7%
	100-300인 미만	39	13.0%
	300인 이상	23	7.7%
매출액	10억 미만	53	17.7%
	10-30억 미만	77	25.7%
	30-100억 미만	72	24.0%
	100-300억 미만	51	17.0%
설립연도	300억 이상	47	15.7%
	2000년 이전	166	55.3%
	2000년 이후	134	44.7%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문헌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300개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업무 효율성과 직업핵심역량에 관한 설문을 하였다. 설문지는 기업체 인력개발팀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하거나 이메일이나 팩스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각 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획득하였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도 받았다

3. 연구도구

직업핵심역량 진단지는 진미석 외(2007)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업핵심역량지표는 6개의 영역으로 각 영역마다 4개에서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총 2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교육과정 분석은 교육목표와 직업핵심역량을 분석 틀로 하여 각 역량에 해당하는 교과목 수와 영역 구분으로 분석하였다.

표 3. 연구도구 항목 구성

도구	항목	문항	총 문항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직업핵심역량	· 의사소통 능력	7	25
	· 대인관계 능력	5	
	· 문제 해결 능력	3	
	· 정보, 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	3	
	· 자기관리 능력	5	
	·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능력	2	

표 4. 교육과정 분석틀

교양교육 목표			
교양교육 영역 및 운영방법			
교양과목 총 이수학점			
핵심역량 개설 비율			
핵심역량	교과목 명	교과목 영역	교과목 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			
자기관리 능력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			

4. 자료 분석 방법

산업체 인력개발팀으로부터 수집된 직업핵심역량 자료는 신뢰도를 검증하는 유선검증(Validation)을 통해 자료검수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부실 자료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친 후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SPSS 18.0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변수로하여 실시하였다. 업종은 서비스업과 제

조업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사업장 규모는 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5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교육과정 문서는 분석 틀에 의해 항목별로 구분하여 빈도분석 및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1. 직업핵심역량 분석

직업핵심역량을 분석해 본 결과 5개의 영역 중 대인 관계능력과 자기관리능력의 평균이 각각 4.16과 4.14로 높은 점수를 보여 산업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역량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능력($M=4.06$), 정보, 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M=3.92$),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M=3.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능력($M=3.83$)이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았다.

직업핵심 역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체에서는 자기관리역량 중 직업윤리 즉,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직업에 임하며,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윤리적 태도($M=4.4$)를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대인관계역량 중 고객서비스 관련 역량인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M=4.28$)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M=4.26$) 역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의사소통 역량은 세부 항목 간의 편차가 커서 전체적인 평균은 의사소통이 다른 역량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 말하기 능력($M=4.22$)과 다른 사람의 말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적극적인 청취 능력($M=4.18$)은 다른 역량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M=3.29$)과 숫자 및 도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M=3.49$)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다음은 직업핵심역량 분석 결과이다.

표 5. 직업핵심역량 분석 결과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핵심역량	하위 요소	N	평균(점)	표준편차
의사소통 역량 (평균 3.83)	말하기	298	4.22	.681
	적극적 청취	299	4.18	.673
	독해력	298	3.98	.752
	쓰기	299	3.85	.742
	영어 능력	298	3.29	.923
대인관계 역량 (평균 4.16)	수학 도표이해 능력	298	3.49	.975
	리더십	298	4.12	.688
	협력	300	4.26	.668
	고객서비스	296	4.28	.739
문제해결 역량 (평균 4.06)	공감	296	4.04	.771
	갈등관리	292	4.12	.760
	창의력	299	4.02	.833
정보, 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역량 (평균 3.92)	분석적 사고력	293	4.05	.743
	문제 해결 실행력	295	4.11	.698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300	4.01	.758
자기관리 역량 (평균 4.14)	자원의 활용 및 관리	297	3.87	.724
	기술의 선택 및 적용	299	3.89	.774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297	4.04	.720
	신체적, 정서적 건강유지	297	4.18	.731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 (평균 3.91)	진로계획 수립 및 실천	297	3.99	.793
	유연성과 도전 의식	296	4.08	.797
	직업윤리	295	4.41	.683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 (평균 3.91)	조직(지구, 국가, 사회, 기업) 이해 능력	296	3.95	.720
	사회문화 이해 능력	295	3.87	.703

2.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직업핵심역량 분석

전체 직업핵심역량을 업종별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핵심역량 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표 6]은 핵심역량 전체 요소를 가지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 업종별, 규모별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규모	213.888	189	1.132	1.125	.270
업종	48.187	189	255	1.058	0.389

3. 교육과정 분석

대학의 교육과정은 직업핵심역량을 분석 틀로 하여 각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교육목표에 따른 영역구분과 영역별 교과목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핵심영역 이외에 취업관련 강좌 영역을 추가하여 특별히 취업을 위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과목 중 이수 구분상 교양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공의 성격을 띠고 전공기초교양과 외국인 교환학생과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공통교양, 일반선택 교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계열교양과 핵심교양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여러 개의 교과목 중 1-2과목을 선택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선택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직업핵심역량 및 취업관련 강좌로 분석한 결과 4개 대학에 필수영역에 28과목 그리고 선택영역에 169과목으로 총 197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역량별로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 관련 과목이 62과목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었고 대인관계능력(9과목) 문제 해결능력(7과목) 관련 과목이 가장 적게 개설되어 있었다. 다음은 대학별 교육과정 분석결과이다.

4.1 A 대학교

A 대학교는 기초교양교육원에서 모든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표현능력, 사유능력(논리력, 창의력, 비판력), 인성, 세계화, 정보화 능력함양을 교양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교양교육은 공통교양(글쓰기, 실용영어, 수리적 사고), 핵심교양(언어와 문학, 사상과 가치, 역사와 문화, 사회와 제도, 자연과 환경, 기초과학, 외국어), 일반교양의 3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공통교양 10과목, 핵심교양 134과목, 일반교양 240과목이 개설되어 총 384의 교양 교과목이 개설 되어 있었다. 핵심교양은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계열별 교양은 인문사회계열은 7개 하위영역 중 '자연과 환경' 영역을 포함하여 5개 이상 영역에서 영역별로 3학점 이상을, 자연계열은 '사상과 가치' 영역을 포함하여 5개 이상 영역에서 영역별로 3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총 384개의 교과목 중 직업핵심역량 교과목은 총 68개(18%)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중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한 3개의 교과목이 필수영역에 개설되어 있었고 65개의 교과목이 선택영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교과목을 역량별로 분석한 결과 맥락과 환경에 관한 교과목이 16과목(4.1%)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었고, 의사소통과 취업관련 교과목이 12과목(3%), 자기관리 능력 관련 교과목이 10개(2.6%)의 순이었다. 반면에 대인관계 능력 관련 교과목이 3과목(1%), 문제 해결 관련 교과목이 4과목(1%)으로 가장 적게 개설되어 있었다.

표 7. A 대학교 교육과정 분석 결과

핵심 역량	교과목 명		교과목 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3), 영어회화(2) 수리적사유(3)	국어와매체언어(3), 실용화법(3), 교양한문(3), 실용한자(3), 한국의언어와문학(3) 인간과언어(3) 언어환경생태학(3) 통계학(3) 실용한국어쓰기(3), 실용한국어듣기(3) 영어1(3), 영어2(3)	3과목 (1%)	12과목 (3%)
대인관계 능력		인간관계성공레슨(3)현대사회와인간관계(3) 국제예절과에티켓(3)	0	3과목 (1%)
문제해결 능력		논리와비판적사고(3)21세기창의실개발(3) 추리와논증의이해(3), 문화속의상상력과창의력(3)	0	4과목 (1%)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		정보사회이해(3) C프로그래밍기초(3) 컴퓨터활용(3), 인터넷정보활용(3), 멀티미디어콘텐츠작업을위한T응용(3), 사무용합을위한T활용(3) ACCESS데이터베이스기초(3) 인터넷시대(3)	0	8과목 (2%)
자기관리 능력		운동과건강(3), 이미지관리(3) 스포츠와스트레스(3)생활속의스포츠과학(3) 삶의질과레크레이션(3), 자기이해와개발(3) 공학윤리와리더십(3)모험과도전적창조와리더십(3)이미지메이킹과패션코디네이션(3)도전과체험(3)	0	10과목 (2.6%)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		국제관계(3), 현대사회와법(3), 현대사회와행정(3), 인간교육(3), 인간과자연(3), 인간과교육(3), 사회문제이해(3), 현대사회의소비자(3), 결혼과가족(3), 한국공공정책의이해(3), 한국의국제관계(3), 다문화주의의이해(3) 다문화사회의새	0	16과목 (4.1%)

		로운이해(3), 인권의이해(3), 현대사회와시민사회운동(3), 국제화시대의지역사회(3)		
취업관련 영역 및 강좌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3), 청년의살과꿈(3), 면접기술(3), 직업의세계와진로설계(3)여대생의진로설계와실천전략(3)여대생커리어(3)외국기업실무기초(3)한국기업실무(3) 기술과정업(3), 공학프로젝트(3), 미래산업과직업선택(3)글로벌리더십(3)	0	12과목 (3%)
총			3과목 (1%)	65과목 (16.9%)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	컴퓨터기초(2)	문서작성과프레젠테이션(3), 웹디자인(3), 프로그래밍(3)	1과목 (2%)	3과목 (7%)
자기관리			0	0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0	0
취업관련 영역 및 강좌		21세기비전과도전(1), 직업의세계와진로선택(2), 취업준비실무(2), 취업지원프로그램(2)	0	4과목 (9%)
총			9과목 (20%)	11과목 (24%)

4.2 B 대학교

B 대학교에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양교육을 전담하고 있었고 합리적인 이성, 도덕적인 품성, 순화된 정서를 갖춘 인간 형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었다.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핵심교양 9과목, 기초교양 17과목, 일반교양 1과목), 교양선택(외국어), 전공기초의 3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총 45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고 최소이수학점은 38-61학점(교양필수; 30-37학점, 교양선택; 8-24학점)으로 정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을 직업핵심역량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45개 교과목 중 20개(44%)의 과목이 직업핵심역량 관련 교과목이었고 이중 필수영역에는 9과목(20%) 선택영역에는 11개(24%)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의사소통 교과목이 필수영역에 6과목(13%), 선택영역에 4과목(9%)으로 총 10개 과목에 개설되어 있었고 컴퓨터 관련 교과목과 취업 관련 교과목이 선택 영역에 각각 4과목(9%)씩 개설되어 있었다. 반면에 대인관계, 문제 해결,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관련 교과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교과목 내용 면에서 극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8. B 대학교 교육과정 분석 결과

핵심역량	교과목 명		교과목 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와쓰기(2), 발표와토론(2) 영어회화(2), 영어회화(2), 영어(2), 영어(2)	영어(3), 기초수학(3), 미적분학(3), 통계학(3)	6과목 (13%)	4과목 (9%)
대인관계			0	0
문제해결			0	0

4.3 C 대학교

C 대학은 교양교육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도덕적 국제전문인이 되기 위한 전인적인 인성 함양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었다. 교양교육은 공통교양, 계열교양, 전공기초교양, 일반교양의 3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공통 및 전공기초교양은 1학년에 마치고 계열교양은 2학년 1학기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교양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총 졸업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이었고 이 중 교양과목 33-39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통교양에서 12학점 이상, 계열교양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기초교양에서 9-15학점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총 193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직업핵심역량 교과목은 총 51과목으로 총 개설된 교양교과목 수(193)의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과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취업관련 영역이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었고 직업핵심역량 중 의사소통능력(4과목) 및 자기관리를 위한 교과목(1과목)만 필수영역에 개설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교과목이 선택영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선택영역에는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이 14과목(7.2%)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었고 의사소통능력 10과목(5%), 자기관리 능력 7과목(3.6%), 대인관계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각각 2과목과 3과목으로 전체 교육과정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9. C 대학교 교육과정 분석 결과

핵심역량	교과목 명		교과목 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의사소통 능력	Academic English(2) Communication English(2) 교양세미나 외글쓰기(3)	기초토익(3) 기초토플(3) 영문강독(3) 영어토론(3) 영작문(3) 영한번역연습(3) 수학의산책(3) 초급한문(3) 수학세계로의여행(3) 자료해석과추리(3)	4과목 (2%)	10과목 (5%)
대인관계 능력		글로벌비즈니스매너(3)인간관계와자기성장(3)	0	2과목 (1%)
문제해결 능력		논리와비판적사고(3) 논리적사고(3) 21세기감성리더십(3)	0	3과목 (1.5%)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		컴퓨터활용(3) 인터넷활용(3) 기초영상제작(3)기초정보검색(3)나노기술의이해(3) 디지털 문화콘텐츠디자인(3) Access 데이터베이스(3) 멀티미디어홈페이지(3)생활속의정보기술(3) 정보검색과표현(3) 포토샵&플래쉬(3) 프레젠테이션제작(3) C언어(3), VJ영상제작론(3)	0	14 과목 (7.2%)
자기관리 능력	대학생활의 설계(1)	대학에서의학습전략(3) 인간과윤리(3) 국제매너와자기관리(3)이미지 메이킹(3) 스포츠와건강의과학적이해(3) 스포츠동작교실(3)여성의평생건강관리(3) 21세기감성리더십(3)	1과목 (0.5%)	7과목 (3.6%)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		국제관계속의한국의위상(3), 생활과법률(3), 환경과인간(3)인간발달과교육(3) 유비쿼터스와의미래사회(3) 세계화시대의한국인과학한국문화(3) 현대사회와행정(3) 현대사회이해(3)	0	8과목 (4.1%)
취업관련 영역 및 강좌		취업전략과사회진출(3), 성공적인인터뷰이미지교육(3), 여대생진로선택과커리어개발(3), 직업선택과취업준비(3), 성공중소기업특강(3) 디자인창업실무(3), 장래를위하여(3), 기술창업경영학(3)	0	7과목 (3.6%)
총			5과목 (2%)	51과목 (26%)

4.4 D 대학교

D 대학교에서는 교무처에서 교양교육을 전담하고 있었고 전인적 인격을 도야하며 건전한 민주 시민의 자질과 가치관 형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었다.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신양 및 세계관, 인성, 기초학문), 교양선택(리더십, 외국어), 전공기초의 3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총 졸업학점 140학점 중 최소 40학점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신양 관련 교과목은 필수로 지정

하고 있었으나 학점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주로 세계관을 함양하고 외국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었다. 교육과정 중 특이한 점은 고등학교 수학(고교 수학 I, 수학 II)을 대학 교육 과정에 포함해 기초교육을 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른 대학에 비하여 직업핵심역량 관련 교과목이 총 124 교과목 중 55과목(44%)으로 비교적 많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필수 영역에 13과목(10%), 선택 영역에 42과목(34%)개설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교과목(23과목, 19%)과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 관련 교과목(12과목, 10%)이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었다. 반면에 문제 해결 능력 관련 교과목을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인관계능력 관련 교과목이 4과목(3%)으로 비교적 적게 개설되어 있었다.

표 10. D 대학교 교육과정 분석 결과

핵심역량	교과목 명		교과목 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의사소통 능력	교양독서(1) English Foundation (3) English Communication(3) English Reading & Discussion (3) English Grammar & Composition (3)	Public Speaking(2), 독서토론과 글쓰기(3) Academic Writing(3), English Pronunciation Clinic(2), English Grammar Practice II(2), English Composition 1(2), English Composition 2(2), 중급영작문(2), 고급영작문(2), 고급영어회화(3), Tell me more(1) Visual mathematics(3) Elementary Calculus(3), Calculus (3), 미분방정식과응용(3), 통계학(3), 통계적방법론(3), 언어추론(3)	5과목 (4%)	18과목 (14.5%)
대인관계 능력	공동체리더십 훈련(6)	리더십이해(2), 인간관계와 자기 성장(3), Development leadership for a global world(3)	1과목 (0.8%)	3과목 (2.4%)
문제해결 능력			0	0
정보·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	정보처리개론(2) 정보처리실습(2)	프로그래밍입문(3),C프로그래밍(3) 데이터통계처리(2), 데이터베이스활용(2), 인터넷활용(2), 윈도우프로그래밍입문(3), 인터넷프로그래밍(3), 컴퓨터그래픽기초(2), 자비프로그래밍입문(3), 실무전산특론1(2), 실무전산특론2(2) 인터넷비즈니스(2)	2과목 (1.6%)	10과목 (8%)

자기관리 능력		생활체육(1) 현대생활과 스포츠(1) 직업과소명(1), 공학윤리(3)		4과목 (3.2%)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	기독교세계관 (2)	기독교와현대사상(2) 세계화입문(3), 세계문화의 이해(3) 글로벌문화체험(2), 시민생활과법(3), 현대사회와여성(3) 환경과인간(3)	1과목 (0.8%)	7과목 (5.6%)
취업관련 영역 및 강좌	실무영어, 한문, 전산, 외국어		4과목 (3%)	0
총			13과목 (10%)	42과목 (34%)

4.5 직업핵심역량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

직업핵심역량과 교육과정 분석을 비교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대인관계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교과목은 단 9개 과목으로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 대학교에는 대인관계역량 관련 과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필수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C 대학뿐이었다. 자기관리역량 역시 중요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전체 4개 학교에서 22개의 교과목만이 개설되어 있었고 대부분 선택과목에 치중되어 있었다. 문제해결역량 관련 교과목은 필수로 개설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고 선택영역에도 지극히 적은 수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B 대학과 D 대학은 문제해결역량 관련 교과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표 11. 대인관계역량 교과목 개설 현황

대학	필수	선택	필수	선택
A 대학교		인간관계성공레슨(3) 현대사회와인간관계(3)국제예절과에티켓(3)	0	3과목 (1%)
B 대학교			0	0과목
C 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매너(3)인간관계와자기성장(3)	0	2과목 (1%)
D 대학교	공동체리더십훈련 (6)	리더십의이해(2), 인간관계와 자기성장(3), Development leadership for a global world(3)	1과목 (0.8%)	3과목 (2.4%)

표 12. 문제해결역량 교과목 개설 현황

대학	필수	선택	필수	선택
A 대학교		논리와비판적사고(3)21세기 창의실개발(3), 추리와논증의 이해(3), 문화속의상상력과창의력(3)	0	4과목 (1%)

B 대학교			0	0
C 대학교		논리와비판적사고(3) 논리적 사고(3) 21세기감성리더십(3)	0	3과목 (1.5%)
D 대학교			0	0

4개의 대학에 가장 많이 개설된 교과목은 의사소통역량 관련 교과목이었다. 직업핵심역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구에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역량 중 말하기와 적극적인 청취 능력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선택하였고 영어 능력과 수학 도표 이해 능력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낮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대학의 의사소통 교과목은 읽기와 쓰기(독해력, 쓰기), 영어 능력과 수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표 13. 의사소통역량 교과목 개설 현황

	필수	선택	필수	선택
A 대학교	글쓰기(3), 영어회화(2) 수리적사유(3)	국어와매체언어(3), 실용화법(3), 교양한문(3), 실용한자(3), 한국의언어와문학(3)인간과언어(3) 언어환경생태학(3) 통계학(3) 실용한국어쓰기(3), 실용한국어듣기(3) 영어1(3), 영어2(3)	3과목 (1%)	12과목 (3%)
B 대학교	글읽기와쓰기(2), 발표와토론(2) 영어회화(2), 영어회화(2), 영어(2), 영어(2)	영어(3), 기초수학(3), 미적분학(3), 통계학(3)	6과목 (13%)	4과목 (9%)
C 대학교	Academic English(2) Communication English(2) 교양세미나와글쓰기(3)	기초토익(3) 기초토플(3) 영문강독(3) 영어토론(3) 영작문(3) 영한번역연습(3) 수학의산책(3) 초급한문(3) 수학기계로의여행(3) 자료해석과추리(3)	4과목 (2%)	10과목 (5%)
D 대학교	교양독서(1) English Foundation(3) English Communication(3) English Reading & Discussion(3) English Grammar & Composition (3)	Public Speaking(2), 독서토론과글쓰기(3) Academic Writing(3), English Pronunciation Clinic(2), English Grammar Practice I(2), English Composition 1(2), English Composition 2(2), 중급영작문(2), 고급영작문(2), 고급영어회화(3), Tell me more(1) Visual mathematics(3) Elementary Calculus(3), Calculus (3), 미분방정식과응용(3), 통계학(3), 통계적방법론(3), 언어추론(3)	5과목 (4%)	18과목 (14.5%)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에는 많은 괴리가 있었다. 직업핵심역량과 개설 교과목 수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2]와 같이 중요도가 높은 과목일수록 교육과정에 적게 개설되어 있다. 학교별로 비교해 보면 [그림 1] 규모가 큰 A대학과 C 대학은 비교적 역량 관련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와 26%로 낮게 나타났다. B 대학과 D 대학은 학교의 규모가 작아 전체 교과목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전체에서 핵심역량 관련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높게 나타났다. B 대학은 전체 교과목의 수가 45개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었고 같은 규모의 D 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표 14. 직업핵심역량과 전체 교육과정 분석 비교

중요도 별 직업핵심역량 영역	교육과정		
	필수	선택	총 교과목 수
대인관계역량(M=4.16)	1	8	9
자기관리역량(M=4.14)	1	21	22
문제해결역량(M=4.06)	0	7	7
정보기술활용(M=3.92)	3	35	38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M=3.91)	1	31	32
의사소통역량(M=3.83)	18	44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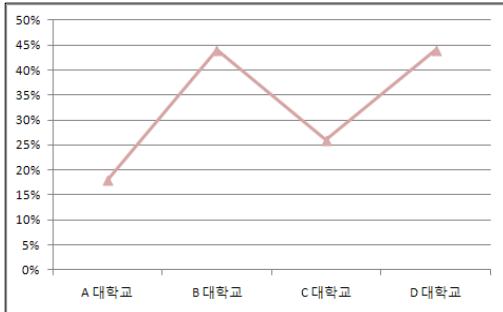


그림 1. 대학별 핵심역량 관련 교과목 개설 비율

5. 종합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핵심역량을 조사하고 지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6개의 역량 중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능력의 평균이 각각 4.16과 4.14로 높은 점수를 보여 지역 산업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역량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능력(M=4.06), 정보, 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M=3.92), 맥락과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M=3.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능력(M=3.83)이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기업에서는 자기관리역량에 속하는 직업윤리(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직업에 임하며,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윤리적 태도, M=4.4), 대인관계역량 중 고객센터서비스(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M=4.28)와 협력(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M=4.26)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의사소통 역량의 경우 전체적인 평균은 의사소통이 다른 역량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말하기 능력(M=4.22)과 적극적 청취 능력(M=4.18)은 다른 역량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중소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을 나타냈다. 반면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과 숫자 및 도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4개 대학에는 필수영역에 28과목 그리고 선택영역에 169과목으로 총 197개의 직업핵심역량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교육과정을 역량별로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 관련 과목이 총 62개 과목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었고 대인관계능력(9과목) 문제해결능력(7과목) 관련 과목이 가장 적게 개설되어 있었다.

직업핵심역량과 교육과정 분석을 비교한 결과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에는 많은 괴리가 있었다. 직업핵심역량과 개설 교과목 수를 비교해 본 결과 대인관계, 자기관리, 문제 해결 등 중요도가 높은 과목일수록 교육과정에 적게 개설되어 있다. 의사소통역량은 항목별 분석에서 말하기와 청취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 교육과정에는 말하기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고 주로 글쓰기와 읽기, 영어, 수학 등의 교

과목이 필수 영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학교별로 비교해 본 결과 규모가 큰 A대학과 C 대학은 비교적 역량 관련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와 26%로 낮게 나타났다. B 대학과 D 대학은 학교의 규모가 작아 전체 교과목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전체에서 핵심역량 관련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은 대인관계 역량과 자기관리역량, 문제해결역량이었다. 그리고 의사소통역량 중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 능력과 언어 정보에 집중하고 적절하게 이해하는 적극적 청취력이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규모나 교육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영어 능력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는 필수 교과목으로 의사소통 영역에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 역시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현재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내용과는 괴리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리감을 극복하고 학생중심 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실천(Practice) 중심의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수행(performance)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좋은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연구를 통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수전략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그림 2]와 같이 다음의 3단계를 통해 설계될 수 있다.

첫째,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을 파악하여 이를 영역으로 분류하고 영역별 핵심요소(key profiles)를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먼저 교육목표를 선정하고 역량별 세부 요소(Key profiles)를 기반으로 교육내용, 교과목의 수와 이수 체계(sequence)와 이수 구분(필수/선택)을 결정한다. 교육과정 설계 시 내용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체계와 흐름을 결정하고 수업내용, 수업방법, 수업전략, 수업매체, 수업

환경 등 세부 사항도 미리 계획한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을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하여 시행된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다.

1단계 핵심역량 선정	2단계 교육과정 설계 교육내용 및 맥락 설계	3단계 프로그램 평가, 수정 및 보완
역량별 항목 세분화 (Key profiles)	교육과정 체계 설계 교육내용(지식, 기술, 태도) 교육내용의 순서(sequence) 이수 방식 (필수/선택)	총괄/수행평가 (교육목표 달성 수행능력 측정) 프로그램평 (만족도 측정)
핵심역량 성취를 위한 수행능력 설정 교육목표 설정	교수학습 방법, 교육환경, 교수매체, 교수전략, 전문가(감사) 결정	프로그램 수정

그림 2.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대학 교육과정의 방향은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에 기인한다. 위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설계 절차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단순하지만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연구하고 결정해야 하는 많은 과정들이 함축되어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의 혁신 뿐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있어서도 변화를 추구한다. 지식 습득 보다는 실천과 수행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각 교과목별 교수설계를 통하여 교육환경, 교수매체, 교수전략, 평가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교육을 위하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명확한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현재 대학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다면 차별화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함양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추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 문헌

[1] 강경중, 이진남,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

-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방안”, 직업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79-13, 2009.
- [2] 김봉환, 이성욱, “대학생의 리더십 향상과 기초직업능력 개발”, 숙명리더십연구, 제8권, pp.35-62, 2008.
- [3] 김도태, 배상욱, 허만우, 박동열,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산업체의 요구 분석”, 평생교육학술지, 제4권, 제1호, 영남평생교육학회, 2004.
- [4] 김성호, “관광과 조리계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교육향상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5] 김승태,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2호, pp.599-626, 2009.
- [6] 김진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직업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109-128, 2001.
- [7] 고재성, 이진남, 김성남, 변정현, “청년층 구직역량 개념 정의 및 가중치 분석”,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2호, pp.17-42, 2010.
- [8] 나승일, 김주섭, 김주일, 정연양, 구자길, 김강호, 문세연, “국가직업능력표준 실용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연구, 제39권, 제1호, pp.191-215, 2007.
- [9] 류장수,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수도권대학 졸업생과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제6권, 제1호, pp.39-49, 2003.
- [10] 박가열, 천영민, “대졸자의 취업 영향 요인 탐색”, 2009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자료집, pp.128-160, 2009.
- [11] 박동열,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유형 진단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연구, 제38권, 제2호, pp.225-245, 2006.
- [12] 박성중, “컴퓨터시 중심 교육 관점에서의 공학기술 교육과정 개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7권, 제2호, pp.55-76, 2004.
- [13] 박종필, 김두화, “200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7권, pp.37-105, 2009.
- [14] 소경희,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27권, 제1호, pp.1-20, 2009.
- [15] 손민호,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의 발전”, 2006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pp.394-401, 2006.
- [16] 송병국, “학교교육에서의 직업기초능력 함양 방안”, 인문과학연구, 제9권, pp.45-72, 2000.
- [17] 안광식, 김미영, 최완식, “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공업교육학연구, Vol.30, No.1, pp.96-105, 2005.
- [18] 안희정, 최은석, “역량모델의 개념과 구축방법론에 대한 개관”, 사회과학연구, Vol.42, pp.43-59, 2003.
- [19] 양승실, 김현진, 주경필,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분석”, 기업능력개발연구, 제9권, 제2호, pp.145-170, 2006.
- [20] 오만덕, 이승희, “대학생 직업소양능력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 적용: D 전문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4호, pp.497-506, 2011.
- [21] 오현식,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경영교육연구, 제47권, pp.191-213, 2007.
- [22] 윤명희, 신현순, 서희정, “대학생의 직업세계 인식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pp.301-327, 2010.
- [23] 이재경,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에 대한 고찰: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 체계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18권, 제4호, pp.25-56, 2002.
- [24] 임언, 최동언, 박민정, 미래 사회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31002, 연구보고 PRC 2008-7-2, 2008.
- [25] 이무근, 직업능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제출용 보고서, 1997.
- [26] 이정표, “주요국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사례 비교분석”, 한국비교교육학회, 제15

권, 제2호, pp.171-195, 2005.

[27] 이종수,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실업 현황 분석 및 대책”,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3권, 제3호, pp.171-192, 2006.

[28] 원상봉, *General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박사 학위 논문, 1987.

[29] 정승환, *대졸사원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0] 정영철, 나승일, 서우석, 송병국, 이종성, “직업기초능력의 영역분류 및 하위 요소 추출”, 직업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15-38, 1998.

[31] 주인중, 권장우, 신준우, 임경범, “IT분야 공학교육인증 이수자의 실무역량에 대한 기업과 졸업생의 인식 비교”,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1호, pp.121-137, 2010.

[32] 주인중, 김덕기, 정종태, 김호연, 최선아, “기업체에서의 역량모델 개발과 활용실태 분석”,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1호, pp.309-334, 2010.

[33] 진미석,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 연구; 대학생직업기초능력 진단종합검사 개발(대인관계 검사 개발과 종합적 사고력 측정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07.

[34] 진미석 정혜령, 이수영, “국내 4년제 대학의 진로 개발지원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pp.135-152, 2010.

[35] 진성희, 성은모, “공과계열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역량 분석: 기업체 경영진과 대학생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pp.95-119, 2010.

[36] 한상근, 정윤경, 최동선, “전차산업 분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컨피턴시와 공학교육의 격차에 관한 연구 -현직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제25권, 제2호, pp.157-193, 2006.

[37] 한승희, *한국교육평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4.

[38] 홍성민, 박진희, “청년층 희망 일자리와 실제 취업 일자리 격차 분석: 고학력 청년 실업원인에 대

한 일고찰”,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780-800, 2009.

[39] 최길성, “역량기반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464-478, 2010.

[40] 최문경, 이기엽,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3호, pp.23-48, 2008.

[41] 채창균, 최지희, 김안국, 오호영, 옥준필,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만족도*,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42] 통계청, *시군지역의 고용 특성*, <http://kostat.go.kr> 2011년 8월11일 검색

[43] S. Jang and N. Kim,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higher education and work in Korea, from the competency-based education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Vol.24, pp.691-703, 2004.

[44] OECD,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OECD, 2005.

[45] L. Spencer and S. Spencer,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and Sons, Inc. 1993.

저 자 소 개

오 은 주(Eunjoo Oh)

정희원



- 199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문학사)
- 2001년 5월 : 테네시 주립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학석사)
- 2006년 6월 : 테네시 주립대학교 교육공학과(철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E-learning, blended learning, Instructional design, Technology-mediated learning, Curriculum design